

# 韓國에서의 民主市民教育 沮害要因과 그 克服方案

金 恒 元\*

## 목 차

- I. 序 論
- II. 市民性和 民主市民教育
- III. 民主市民教育의 沮害要因
- IV. 民主市民教育 沮害要因의 克服方案
- V. 結 論

## I. 序 論

금년은 해방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정치 민주화가 그전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sup>1)</sup> 그리고 올해는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는 중요한 해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共同生活의 形式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sup>2)</sup>라고 본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로 나가는 시점에서 한국인의 시민성, 즉 민주시

\* 제주대학교 교수

1) 통계청, “94년 사회통계 조사,” 조선일보, 1994. 12. 28. 12면.

2)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교육과학사, 1994, p. 137.

민의식의 수준은 어떠한지 되돌아 보게 된다. 교통사고율 세계 3위, 각종 인권 유린 범죄와 빈번한 대형사고를 볼때, 최소한도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할 덕목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과 태도가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정치인들의 의식과 태도도 민주적이라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관용적이라기 보다는 독단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으며,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 보다도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해온 결과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의식과 태도도 기르지 못한 교육이었는데를 반성하게 한다. 물론 교육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교육외적인 여건과 환경요인이 크게 沮害要因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된다. 교육외적인 환경요인으로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문화, 가정문화, 정치 사회적인 현실 및 그외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저해요인을 찾아내고 그 극복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필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의 沮害要因을 찾아내어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文獻研究이다. 政治社會化는 정치문화를 전해주는 측면과 시민 문화적인 참여문화를 형성시키는 면이 있다. 지금 까지 한국에서는 전자의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정치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집단 및 매스컴을 포함하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沮害要因을 찾아내어 그 극복 방안을 탐색하려 한다. 본고의 순서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2장에서는 市民性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및 민주시민교육의 환경을 살펴보고 한다. 제3장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沮害要因을 찾아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그 沮害要因 극복 방안을 가정, 학교,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제시한 후에, 제5장에서 결론을 맺으려 한다.

## II. 市民性と民主市民教育

### 1. 市民性と民主市民教育の概念

#### 1) 市民性の概念

市民性は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민의 개념과 특질을 살펴 본 후에 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은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민주 시민은 자율적이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결정을 할 때도 공공 선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시민은 ① 민주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② 그 시대들의 당면 문제를 인식하며, ③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알고, 그리고 이 태도들과 일치해서 그의 행동들을 안내하고, ④ 민주적 관계를 실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⑤ 시민으로서 시민행동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들을 소유하고 사용한다.<sup>3)</sup>

다음으로 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한다. 시민성은 국가에 의하여 개인에게 주어진다. 시민은 한 국가의 합법적으로 인정된 성원이다. 이러한 엄격한 의미에서 시민성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집합이다. 이 관계들은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다.<sup>4)</sup>

또한 시민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좁은 의미로 시민성은 단지 한 국가 내에서 법적인 지위와 그리고 투표, 정부의 조직, 공직에 취임, 법적인 권리와 책임과 같은 정치적 기능들에 밀접히 관계된 활동들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로 시민성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휘되는 바람직한 개인적 자질들과 거의 동등한 의미이다.<sup>5)</sup>

F. Butts는 현대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12 가지 시민성을 의무적 측면의 6개항

3) Benjamin C. Willis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A Depart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4, p. 365.

4) Shirley H. Engle & Anna S. Ochoa,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88 ), p. 16.

5) Benjamin C. Willis et. al., op.cit., p. 364.

과 권리적 측면의 6 개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sup>6)</sup> 통합성 시민적 의무에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리, 애국을 제시하였고, 다원성 시민의 권리에서는 자유, 다양성, 사적 자유, 의무, 재산, 인권 등을 들고 있다.

## 2) 民主市民教育의 概念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지식, 기능 및 능력,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성을 함양하거나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신념, 가치관, 태도, 능력 등 제반 인간적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sup>7)</sup>이다. 그리고 시민적 자질이란 “민주사회에서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의미한다.”<sup>8)</sup>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정부기구에 대한 지식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것은 민주적인 원칙들에 대한 합리적인 서약, 그리고 사회집단들의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부터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까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sup>9)</sup>

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나 기능교육이 아니고 가치교육이다. 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sup>10)</sup> 즉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도덕적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학생들의 특별한 지식, 능력과 性向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 2. 市民性과 民主市民教育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고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민주시민 육성이 국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강조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투표에 의존하는 만큼,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

6) 최현섭, “미국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pp. 146-147.

7) 광병선,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p. 21.

8) 조영달,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시민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과 시민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1994, 10, pp. 108-109.

9) Shirley H. Engle & Anna S. Ochoa, op. cit., pp. 17-18.

10) Ian Wright, “Civic Education is Values Education,” *The Social Studies*, July/August, 1993, p. 149.

복종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치가 잘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外的權威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性向이나 관심으로 外的權威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자발적인 성향과 관심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sup>11)</sup>

시민교육이 할 일은 바로 공동체성과 합리적 이익추구의 원칙 및 그 근거 그리고 그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을 탐구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시민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시민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도덕과 준법의식을 고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민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아울러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경험을 길러주는 데 있다.<sup>12)</sup>

### 3. 民主市民教育의 環境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教育外的인 요인들이 沮害要因으로 작용한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다. 정치사회화 연구에 의하면 정치문화가 전해지는 데 공식적인 학교 교육 보다는 비공식적인 가정이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환경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환경을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인 환경은 주어진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활동을 말하며, 외적인 환경은 민주시민교육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정치체제, 정치 현상 및 사회적 풍토를 말한다.

전득주와 최현섭은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을 비교한 연구에서 내적환경 요인과 외적환경 요인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3)</sup>

내적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첫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명료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부족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방식이 민주적 원리에 의거하여야 한다.

외적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첫째, 외적환경 요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것은 당연히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11) 존 듀이, 전계서, p. 137.

12) 조영달, 전계서, p. 109.

13) 전득주 외, 전계서, pp. 277-283.

정권의 획득과 행사가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게 체험으로 습득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 사회적인 제도가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치 엘리트의 민주적 실천과 국민들의 참여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적 원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가 있어야 한다.

### Ⅲ. 民主市民教育의 沮害要因

#### 1. 家 庭

가정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핵가족과 대가족 및 가족 구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의식과 태도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 가정 분위기와 부모의 모범 및 자녀교육이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는 데 한정하려고 한다.

##### 1) 家庭文化

가정은 가치와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릴 때 형성된 일반적인 태도가 정치적 태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wson과 Prewitt는 “가정은 자녀의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충성심과 같은 定向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고”<sup>14)</sup> 지적하였다.

한국의 가정들은 대체로 家父長적이고 權威主義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가 평등하지 못하며, 자녀들도 부모의 일이나 가정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보다는 권위주의적인 性向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Frenkel-Brunswick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의 독선적인 성격은 부모가 독선적이고 완고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복종의 형태를 취하는 가정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명백해졌다.<sup>15)</sup>

한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자유스러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권위적인

14)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Karen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Second Edition (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 p. 120.

15) 魚秀永, “現代韓國의 政治文化,” 金雲泰 외, 「韓國政治論」第三全訂版, 博英社, 1994, p. 291. 재인용.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한국의 가정이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형성되는 데 많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 家庭 雰囲気와 父母의 模範

가정마다 문화가 다양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부모가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만드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의 가정은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여왔다.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착한 아이이고 웃어른에게는 무조건 복종하고 공손하게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자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버지 혹은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

부모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만을 내세우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가정 분위기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가치와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자주 보이고 실천하는 부모 밑에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그 자신들이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잘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것 같다.

## 3) 父母의 子女教育

한국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인간교육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식과 기능 교육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주택가 주변에 늘어선 각종 학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방법도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적인 자녀교육이 자녀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난다.<sup>17)</sup>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기초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

16) 상계서, p. 301.

17) 상계서, p. 291.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훈련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지 못하고, 또한 규칙을 지키는 것을 경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온 아동들은 규칙은 잘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며,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도덕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교육의 경시 내지는 무관심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 2. 學 校

학교는 공식적으로 의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공식적인 교실교육과 교실 밖의 과외활동으로 나누고, 다시 교실교육은 교육과정, 교사 및 교실 분위기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 1) 公式的인 教室과 民主市民教育

#### (1) 教育課程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및 국민윤리과와 도덕과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과로서, 그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해방 직후인 교수요목 시기 (1946-1954)부터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sup>18)</sup> 내용면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유신시대는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제5공화국이나 제6공화국 때는 정권 차원의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후 지금까지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과서가 만들어져 왔다. 물론 정권에 따라서 자기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저해가 되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된 때도 많았지만 큰 흐름은 민주시민교육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 및 능력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민시대, 민주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을 기르고, 고도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지구촌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세계시민적 자질 등을 지닌 사회인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사회과교육이 필요했다”<sup>19)</sup>고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18) 교육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2, pp. 26-27.

19) 상계서, pp. 24-25.



## (2) 教師와 教室 霧圍氣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와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 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사들이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다. 교사들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시민교육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문화, 정치 사회적인 풍토 및 교사교육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교육 현실은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 결과 학급 운영을 하는데 지시와 명령이 주가 되고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체벌이나 욕설이 행해지거나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교실 분위기가 되었다.

국민학교 때는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동들의 가치와 태도에 주는 영향은 큰 것이다.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실 분위기와 교사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모방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는 더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학교 행정가들도 민주시민교육 보다는 학생들의 진학률에 더 관심을 두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교육을 은연중에 조장해온 감이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급에서의 자치활동도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학급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10월 유신 이후에는 반장 선출제도가 폐지되고 담임교사가 반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20여년 계속되었다. 따라서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

교사들의 수업방법도 토론이나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탐구식 방법이 아니고 과거의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이 행해져왔다. 주입식 방법은 학생들을 피동적으로 만들며,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발표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전체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과와 국민윤리과 및 도덕과 교사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했지만, 그것도 어디 까지나 지식으로서 민주주의를 가르친 것이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 2) 非教室적인 方式과 民主市民教育

공식적인 교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영향으로 학교문화와 특별활동 및 서클 활동과 같은 과외활동도 시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學校文化

학교문화는 지역별, 공·사립별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대체적인 과거의 학교문화는 자유스럽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배하여 왔다. 해방 후에 학교 운영자인 교장과 교감이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았으며 민주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풍토가 학교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는 거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 교사 상호간의 관계 및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 (2) 特別活動과 課外活動

특별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잘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많았다. 이 특별활동들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된 다기보다는 지도교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과의활동은 학생회, 연극 및 음악부, 운동부, 보이 스카웃, 걸 스카웃, 소년단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회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던 것이 10월유신 후에 간접선거 혹은 학교에서 임명하게 된 후 20여년 동안 학생회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기타과의활동들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보다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많았다.과의활동에 따라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거나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 3. 政治·社會

정치·사회 측면은 한국의 정치문화와 해방 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정치 현실을 살펴보는 데 그치려고 한다.

### 1) 政治文化

한국의 정치문화를 보면, 朝鮮朝에는 500년 동안 유교가 국교로 인정되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여 왔다. 유교는 조선왕조가 새로운 건국이념으로서 표방한 정치적 지도이념인 동시에 官人支配를 뒷받침하는 정치철학이었으며 나아가서는 李成桂의 정권 찬탈을 易姓革命이라는 윤리적 명분론으로 정당화 시켜준 이데올로기였

다. 또한 그것은 가족 촌락 및 민족 등의 제1차 사회집단 내의 인간관계에 있어 순종의 체계를 禮論的 規範에 의하여 정당화하고 이러한 봉건적 신분질서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價値準據가 되었던 것이다.<sup>20)</sup>

일제 35년 동안은 군국주의적인 식민지 문화가, 해방 후 자유당 정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196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은 권위주의적인 軍士文化가 지배하여 왔다.

따라서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치문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정치문화의 구성요소가 默從性向, 擬人主義性向, 形式主義性向과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sup>21)</sup>

## 2) 過去 韓國의 政治

해방 후 1960년 초까지 자유당 시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독재정치를 하였다. 4·19 이후 민주당 정부에서는 민주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사회혼란 속에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유신체제를 경험하였다. 1980년 12·26 이후 제5공화국도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1987년 6·29 선언 후에 대통령 직선을 통해서 들어선 제6공화국 부터는 민주정치의 틀이 정착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은 제6공화국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6공화국의 체제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중간 단계에 있는 다소 약화된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제대로 민주정치가 행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4·19 이후에 잠시 지방자치가 시행되었으나 그 후 30년 이상을 민주주의 훈련장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 근 50년 동안 한국인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정치현상을 보면서 살아온 국민들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의식과 태도를 자신도 모르게 배우게 되었다.

20)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 (근세편)」, 博英社, 1970, p. 40.

21) 魚秀永, 전계서, p. 270.

22) 申道澈 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의식과 이념적 성향 분석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195.

## IV. 民主市民教育의 沮害要因 克服方案

3장에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해온 요인들을 가정, 학교 및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극복 방안도 가정, 학교,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해 요인과 관련해서 제시해 보려고 한다.

### 1. 家 庭

#### 1) 家庭의 環境

민주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sup>23)</sup> 그리고 Karl Mannheim은 안정되고 독립성을 갖춘 민주적인 성격은 근본적으로 일차집단에서 형성되고 배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가정의 환경을 민주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집안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되고 참여를 권장하는 민주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 家庭의 役割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첫째, 가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정신이 싹트는 곳ियो,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규율과 규범을 배우는 최초의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은 민주시민 사회의 기간이 되는 보편적 예절의 정신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문명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공통되는 예절의 정신이 건재한다. 예컨대, 청소와 환경보호, 신의와 성실, 근면과 자조, 평화와 비폭력 등은 세계 어디서나 모든 민주시민 사회의 미덕이요, 보편화되어 있는 정신과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신과 자세 등을 익히고 배우는 곳이 곧 가정이다.

가정은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최초의 장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다. 가정에서 형성

---

23) 魚秀永, 전계서, p. 291.

24) 상계서, pp. 291-292. 재인용.

25) 金鍾喆, 전계서, p. 123.

된 태도는 일생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교육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거나 결정하며 판단해 보게 한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도 부모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큰 것이다.

## 2. 學 校

한국과 같이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사회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전통과의 조화와 균형 문제가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정치 사회 측면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영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첫째,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를 닦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닫힌 교육은 획일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열린 교육은 수업의 과정에서 자발성을 북돋워, 그들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교육이다.

셋째, 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소외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다른 수범을 보여야 한다.

제3장에서와 같이, 학교를 공식적인 교실교육과 교실외적인 교육으로 나누어서 민주시민 교육의 沮害要因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公式的인 教室 教育

공식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의 저해 요인에 대한 극복 방안을 다시 교육과정과 교사 및 교실 분위기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 (1) 教育課程

제6차 교육과정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에 민주시민의

26) 광병선, 전게서, pp. 40-43.

기본자질을 육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과 방법 및 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도덕과의 경우, 국민학교에서는 성격과 목표에서 도덕성 함양과 자율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목표에서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고 되어 있다. 고등학교 윤리과의 성격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윤리적 인식체계를 정립하고, 건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르게 하는 교과라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데 중심적인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 및 윤리과에서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한국인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 교육은 특정 교과에서만 전담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서 실천되어야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성 교육은 교육과정에 부과되는 어떤 것, 즉 학생들에게 하기를 권하는 어떤 것, 이 아니다. 그것은 고정되고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전체 학교의 계속적이고 동적인 기능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매일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시민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아동들이 민주적 시민성의 특성과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대의정치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협력적인 행동에서 기능을 얻을 수 있고, 행동에서 민주적인 가치들을 시험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에 포함된 인간관계들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직원 계획과 전체적인 참여를 불가피하게 한다.<sup>27)</sup>

제6차 교육과정은 그 이전보다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교과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의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과 이외에 언어, 영어, 반별 자율활동, 과외활동 및 학교 전체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교과의 지도시나 특별활동 시간 또는 학급운영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전인교육이 되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27) Arnold R. Meier, Florence Damon Cleary and Alice M. Davis,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 : Wayne University Press, 1952), p. 398.

28) 朴容憲, “政治教育의 性格과 課題,” 國民倫理學會 編, 「政治教育」, 螢雪出版社, 1983, p. 63.

## (2) 教師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자신이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며 교육방법도 주로 탐구식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교사가 가져야 할 성숙한 민주시민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 ① 어디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편안하고 친절함 태도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 ③ 인생에 대해서 모험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한다.
- ④ 타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을 인상지우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들 속에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 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기여하기를 갈망한다.
- ⑥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그가 아닌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 ⑦ 자기 본위를 피한다.
- ⑧ 가장 유용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하며, 완전한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다.
- ⑨ 다른 사람들의 의사에 조정하도록 그 자신을 자발적으로 훈련한다.
- ⑩ 그에게 좋은 것이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
- ⑪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고, 위기에 처해도 잘 극복하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가진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특성을 가진 교사들은 겸손하고 친절하며 적극적이지만 지배적이 아니고, 인간 생활의 부분으로서 개개의 젊은이들을 존경한다. 또한 협조적이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실 분위기에 적응하고 학교 내외에서 그의 학생들과 그들의 발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침착하고 성숙한 교사는 타인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다룸에 있어서 선량한 시민성 행동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교사는 젊은이들에게 야망과 성숙감을 준다. 젊은이들은 그들 앞에 언제든지 그들과 그들의 미래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模型을 가진다.<sup>30)</sup>

29) Richard E. Gross, Leslie D. Zeleny, and Associates, *Educating Citizens for Democra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 473-4.

30) Ibid.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실에서나 운동장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그 교사를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인 교사는 학생들을 대하는 데나 학급 운영에서 또는 교과 지도나 학생 지도에서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및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L. E. Powell도 가장 효율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으로, 활동적 학습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참여를 가장 중시하였다.”<sup>31)</sup>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수 방법은 주입식보다는 탐구식 방법인 토의법, 문제해결법, 문답법, 관찰 및 사회조사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탐구수업 모형을 활용해서 문제의 인식, 가설 설정, 증거 수집 및 평가, 결론 및 일반화 도출의 과정을 거치는 귀납적인 지도 방법이 효과적이다.

Engle은 반성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하기, 탐색적인 질문을 사용하기, 가치 가정들을 확인하기, 대안들을 확인하고 결과들을 예측하기, 결정에 도달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sup>32)</sup>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사의 역할은 사고를 자극하고 대화를 격려하며,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조장하며, 경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촉구하며, 엄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사는 토의 중에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sup>33)</sup>

### (3) 教室環境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스러운 열린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열린 교실 환경이란 “그것이 아무리 논쟁적일지라도, 아이디어의 교환과 대화는 지적인 성장에 기여하며, 그리고 증거와 이유와 민주적인 가치들이 복잡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의사 결정에 기본적이라고 보는 곳이다.”<sup>34)</sup>

교실 환경은 수업보다도 민주시민을 키우는 데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수업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증가될 수 있으나 교실 분위기가 민주적이 아닐

31) 최현섭, 전제서, p. 157. 재인용.

32) Engle, op. cit., pp. 169-174.

33) Ibid., p. 162.

34) Ibid.



때는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10개국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실 수업보다는 교실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지적이고 덜 권위주의적이며, 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되었던 학교 출신들이었다.<sup>35</sup>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전교사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실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주적인 열린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學校環境과 課外活動

### (1) 學校環境

학교의 전체적인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간에 민주시민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건물, 학교 조직, 그 계획, 설비, 교수자료와 다른 자료들의 이용은 시민교육의 향상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sup>36</sup>

학교의 문화가 민주적이 되어서 교장과 교사간에, 교사 상호간에, 교사와 학생간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이 된다면,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경영자는 가능한 한 학교의 환경을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열린 환경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特別活動과 課外活動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과 월별 및 주별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실시가 되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학교도 있다.<sup>37</sup>

특별활동은 계획 단계에서 부터 학생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도 학생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는 과외 활동이 설 자리가 별로 없겠지만,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 목표에 충실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과외 활동이 권장되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35) Judith V. Torney, A. N. Oppenheim and Russel F. Farnen,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Sweden : Almquist & Wiksell, Uppsala, 1975), p. 18.

36) Arnold R. Meier, op. cit., p. 397.

37) 제주도 남녕고등학교에서는 1년전 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 3. 政治 社會的 側面

민주시민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현실 정치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척되고 특히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되어 간다면 민주시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년 6월 27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정착되어 간다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정치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민주정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환경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시민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에서의 우리 사회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 도덕력의 제고와 좋은 본보기를 제시할 것이 기대된다.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둘째, 소집단, 자원단체 등에 의한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 운동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단체의 말없는 실천은 곧 민주시민 교육의 생동하는 도장이요,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공존공영과 상부상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과 봉사,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는 가운데 갈등과 시비의 평화적 해소와 비폭력의 존중 등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풍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할 것이 기대된다.

## V. 結 論

본 연구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기관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 사

---

38) 金鍾喆, 전계서, p. 125.

회 측면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의 저해 요인을 찾아내어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민주시민 교육의 저해 요인을 보면,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오는 가정 분위기와 부모들의 자녀교육 및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데 있었다. 학교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교실 분위기와 입시 위주의 주입식 수업 및 학교 문화에 있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와 해방 후 50년 가까운 독재정치 내지 권위주의적인 정치 현실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극복 방안을 보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민주시민이 되어서 가정 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교사들 자신이 민주시민이 되어서 교실 환경을 민주적인 열린 교실로 만들며,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탐구수업 혹은 반성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문화도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잘 실시가 되어야 하겠으며, 정치 참여가 적극 권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추진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시민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며, 민주적인 이상과 가치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실현되어 갈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곽병선.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교육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2.
-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博英社, 1970.
- 金鍾喆. “民主市民教育의 實踐機構 및 制度.”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4. 10.
- 朴容憲. “政治教育의 性格과 課題.” 國民倫理學會 編. 「政治教育」. 螢雪出版社, 1983.

- 申道澈·金光雄·崔明·朴贊郁.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의식과 이념적 성향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魚秀永. “現代韓國의 政治文化.” 金雲泰 外. 「韓國政治論」第三全訂版. 博英社,  
1994.
-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 조영달.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시민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과 시민의식」. 서울대  
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1994. 10.
- 존 듀이. 「民主主義와 教育」. 李烘雨 譯. 教育科學社, 1994.
- 통계청. “94년 사회통계 조사.” 조선일보, 1994. 12. 28. 12면.
- Chance, Jerry M.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Citizens*. *The Social Studies*, July/  
August 1993.
- Dawson, Richard E., Prewitt, Kenneth, and Dawson, Karen S. *Political  
socialization*. 2th.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 Engle, Shirley H. and Ochoa, Anna 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88.
- Gross, Richard E., Zeleny, Leslie D., and Associates. *Educating Citizens for  
Democra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Meier, Arnold R., Cleary, Florence Damon, and Davis, Alice M.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 : Wayne University Press, 1952.
- Torney, Judith V., Oppenheim, A. N., and Farnen, Russell F.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Sweden : Almquist & Wiksell, Uppsala, 1975.
- Willis, Benjamin C.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A Depart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4.
- Wright, Ian. “Civic Education is Values Education.” *The Social Studies*. July/  
August, 1993.